

사이에서 사는 삶 LIVING BETWEEN

복미한인 고등학생 성경공부 교재

편집자

이학준, 박케빈(Kevin Park), 박길재



Christian Education Center

연구조사와 가르침과 훈련으로 차세대 아시아계 한인 지도자 양성

표지에 나오는 나무의 이미지는 세종대왕 시대에 편찬된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라는 시를 토대로 것입니다.

"불휘 기쁜 날간 바람에 아니 뵈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A deeply-rooted tree does not waver at wind, its flower blossoms, its fruit plentiful."

이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국 교회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고, 부모님과 선배들의 사랑의 돌봄 속에 양육되어 이중 문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꽃을 피우는 우리 북미 한인 청소년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2014 G2G 기독교교육 연구소
무단 복제 금지.

2014년 출판
G2G 기독교교육 연구소 대표
2457 Santa Anita Ave, Altadena CA 91001
(646) 220-3258
g2gcec@gmail.com
www.g2gcenter.org

ISBN: 978-1-63173-491-5

책 디자인: 박사라(sarahypak0830@gmail.com)

G2G 기독교교육 연구소 대표
G2G 기독교교육 연구소는 아시아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영적, 문화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독교 기관입니다.

아래의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감동적이고 유례를 찾기 힘든 희생과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복미 한인 부모님들

우리 청소년들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정상에 우뚝 설 때까지 늘 그들과 동행해 주는
청소년 목회자와 교사들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복미 한인 청소년들

목차

머리말	i
감사의 말	iii
들어가는 말	v-vi
사용하는 방법	vii-viii
1. 세 마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1
2. 유관순(1902-1920): 민족을 감동시킨 소녀	4
3. 누가 나를 사랑할까?	8
4. 혈문 산의 이슬 같은 예배	12
5.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6
6.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20
7. 단호한 사랑	24
8. 난 전혀 몰랐어요	28
9. 다른 유형의 죄	32
10. 내부인, 외부인	36
11. 나보다 부모님 먼저 = 사랑	40
12. 서로 다른 사랑의 표현	44
13.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48
14. 무엇을 입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52
15. 매일 매일	55
16. 무조건적인 공경	59
17. 부재중인 하나님	63
18. 예수님이라면 뭘 포스팅하실까?	67
19. 화해로 가는 길	71
20. 재할용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	75
21. 여보세요,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79
22. 성정체성에 대한 두 이야기: 여자는 ... 남자는 ...	83
23. 딱 한 번만 더	87
24.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모임	92
25.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96
26. 싸이(Psy)나 한숨(Sigh)이나?	100
27. 심은 대로 거둔다	104
28. 접근금지!	108
29. 도대체 기도가 뭘까?	112
30. 신체 이미지와 마음 이미지	116
31. 보복	120
32.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만 사랑하실까?	123
편집자들의 이력	127

21

LESSON

여보세요,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야기

제레미의 이야기

제가 속한 교회의 청소년 그룹은 이번 달에 전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그룹 전도사님은 지난 주에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전도에 집중했고 우리 모두가 이번 달에는 적어도 한 명의 친구를 교회에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초청할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호가 생각났습니다. '맞다! 영호를 초대하면 되겠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영호를 보고 쟁반을 들고 영호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제가 속한 청소년 그룹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영호가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영호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음 ... 글썄, 생각해 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영호는 제게 "넌 정말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 하고 물었습니다. 영호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생네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니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 하지만 난 그런 말이 도 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너는 아니?"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호가 그 교회에서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어떻게 하면 영호에게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제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질문

1.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제레미처럼,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개인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2. 여러분이 제레미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영호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요약

때로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도 그런 이유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구

체적이고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 중 하나는, 인격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자기만의 말로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23 편

다윗의 시

- 1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질문

1. 다윗은 양 치는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비유를 생각할 때 그가 소년 시절에 목동이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2. 다윗은 “여호와께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라는 단어를 추가하면 이 문장이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말해 보십시오.



적용

1. 다윗은 목자의 역할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묘사합니다. 다윗이 목자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힌트: 시편에 대한 해석이 아래 상자에 제공됩니다. 먼저 자신의 답을 말해 본 다음에 해석을 보도록 하십시오.)

Psalm 23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공급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 쉼
של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 새롭게 함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 치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 인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 목적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 시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 보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 신실하심
주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훈련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 소망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 성별
내 잔이 넘치나이다 - 풍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 복 주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 안전함
영원히 - 영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음 구절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 관계

2.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묘사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비유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을 여러분의 버전으로 옮겨 써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_____ 이시다." 로 시작하면 되겠죠.